

중앙아시아 국가의 섬유정책

중앙아시아의 섬유산업은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. 16세기 이래 실크로드를 이용한 카라반 무역은 유럽과 중국을 연결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.

사마르칸트 및 부하라와 같은 도시들은 실크로드를 따라 형성된 중요한 무역 거점이었다. 우즈베키스탄, 투르크메니스탄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,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섬유산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, 두 국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1. BF textile

터키의 BO 그룹에 속한 BF textile은 섬유 및 의류 제조업체로서, 방적사, 염색 및 날염된 편성원단 및 의류를 제조하고 있다. 로터 방적공장을 보완하기 위해 세 번 수 코머사 제조를 위한 방적공장을 확충할 예정이며, BF textile의 제품들은 러시아, 벨라루스, 터키 및 우크라이나로 수출되고 있다.

2. UZTEX Group

UZTEX Group은 5 개의 수직 통합형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, 우즈베키스탄에서 Rieter사의 방적설비를 갖춘 2개의 최신식 방적공장을 보유하고 있다. UZTEX Group은 우수한 품질의 방적사를 제조하여 제조량의 약 90 %가 수출되고 있으며, 우수한 인력과 최신 방적기술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.

3. 섬유산업 운영방식

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섬유 및 의류산업 지원체제 방식은 다음과 같다.

우즈베키스탄은 민간과 국가가 섬유 및 기성의류 기업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반면, 투르크메니스탄은 주로 국영으로 섬유기업이 운영되고 있다.

따라서 두 국가간 경제정책 및 경제활동의 추진방향은 서로 유사하지만, 다른 점이 발견된다는 것은 흥미로운 점이다.



<그림 1> 중앙아시아 국가들

♣♣ Rieter Link No. 66, 2015